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2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7월 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유성기업
현장 곳곳에서
몰래카메라 발견

분위기 파악 못하는 유성자본

얼마 전, 대형 금융사를 비롯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다.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이 있었고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CCTV,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일례로 어느 사업장은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며 출입을 막더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로는 신분증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이런 분위기인데 유성자본은 당당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유성지회는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수많은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재판에 제출된 증거사진 중에 도저히 기존의 CCTV로는 촬영할 수 없는 각도의 사진이 제출된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조합원들이 확인한 결과 현장 사무실 등에서 3개의 몰래카메라와 급하게 떼어낸 듯한 1개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 몰카들은 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으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설치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옷 갈아입는 탈의실까지 촬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유성자본의 노조파괴 행각은 경찰과 검찰의 비호 속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아주 미미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유성자본이 더 미쳐 날뛰는 형국이다. 이번 몰카 사건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영동검찰과 경찰이 이것마저 적당히 봐주기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미 지회는 긴급 기자회견과 지부 차원의 규탄 집회를 열었고, 지회에서 매일 규탄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파괴 범죄자들의 마지막 발악

정말 가관이다. 이보다 더 추잡하고 파렴치한 행각이 또 있을까 싶다. 노조파괴라는 범죄가 얼마나 막장까지 치닫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만큼 유성자본이 위기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성자본은 이미 발을 잘못 들여 더 이상 발을 뺄 수도, 더 깊이 밟을 수도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여러 번 경고했다. 유성의 관리자들은 노조파괴에 동조하다가 혼자 뒤집어쓰고 버림받을 게 뻔하다. 나중에 후회말고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광명찾기 바란다.

능다능다 몰카까지! 유성기업 규탄한다!
끝까지 지켜본다! 영동 검·경찰은 제대로 수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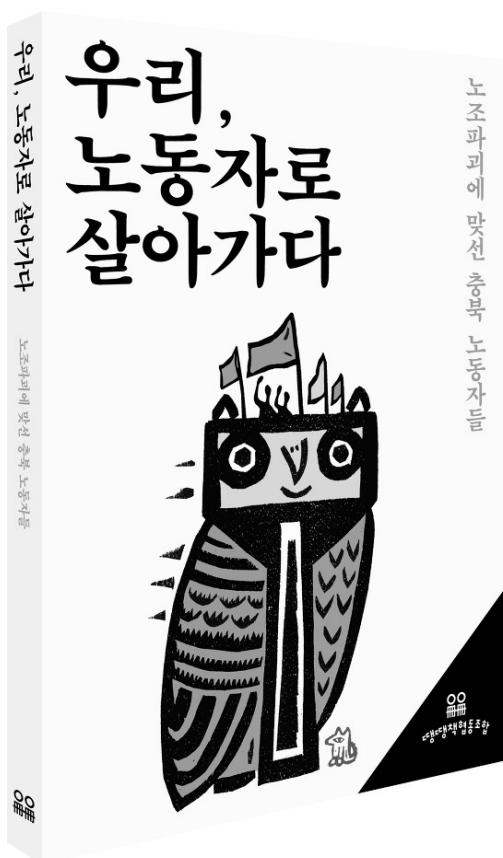
보쉬전장, 임금차별 계속하려니 뭔가 켕기나?

보쉬전장이 일보고 뒤를 안닥은 것처럼 찻찻한가 보다. 뭔가 켕기는게 있는데 말로 하기는 어려운가 보다. 갑자기 안하던 짓을 한다. 지난주 지회 교섭에서 보쉬전장 사측이 임금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어용노조와 임금차별을 두기 위해서 각종 명목의 일시금, 타결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던 것과 달리, 어용노조와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나왔다.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사측의 계산서는 복잡한 것 같다. 교섭대표노조 소송에서도 번번이 깨지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마저 지면 그동안 어용노조에 지급한 임금인상분과 타결금, 일시금 모두 근거없이 지급한 것이 된다. 그리고 금속노조와 교섭을 타결시켜서 쟁의권을 없애고 싶기도 할 것이다.

더 이상 노조파괴 사업장들이 임금차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가 어려워졌다. 그동안 3년여에 걸쳐서 몇천 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차별을 받아오면서도 묵묵히 참고 투쟁해온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앞으로 더 당당히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돈의 노예를 거부하고 당당히 싸워온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보쉬전장 자본은 불필요한 소모전은 그만두고, 임금차별, 해고자 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충북의 노조파괴 투쟁 책으로 발간



노조파괴에 맞선
충북 노동자들

“우리, 노동자로 살아가다”

그동안 노조파괴 분쇄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했던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동지들과 땀땀책협동조합이 함께 제작한 소책자입니다. 충북지역의 노조파괴 문제를 다루고 널리 알려내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 * 구입 문의 :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장 임성우 (010-3231-3004)
- * 가격 : 권당 3,000원

세월호 가족들,

특별법 제정 위한 전국순회 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전국 순회에 나섰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 간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순회버스를 진행한다.

7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천만서명 운동을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순회버스다. 유가족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부권과 동부권 끝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난다.

가족대책위는 순회 첫날인 7월 2일 오전 11시 순회버스 출발지인 진도 팽목항과 경남도청 앞,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 동시에 열어 순회버스 출발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성실한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또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천 개의 바람이 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천만인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면서 “진실을 향해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달라질 수 없고,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고 힘겹지만 멈출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 * 7/10(목) 15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충북지역본부)
- 19시 촛불집회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 jswcool@naver.com



<7.1 유성기업 몰카사건 규탄 기자회견>



<7.1 유성기업 몰카사건 규탄 기자회견>



<7.2 유성 몰카사건 수사촉구 결의대회>



<7.2 유성 몰카사건 수사촉구 결의대회>